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설재풍[†]

황인호

건국대학교

본 연구는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고등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고등학교 2학년 남, 여학생 24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균등 할당하는 짝진 집단 설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집단에는 설재풍(2003)이 개발한 것을 수정한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통제집단에는 아무런 처치를 가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도구로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검사와 자아존중감 검사였으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로부터 2개월 후에 검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전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둘째, 본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주요어 : 가치명료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자아존중감

[†] 교신저자 : 설재풍, (464-701)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45번지 동보아파트 101-305
전화 : 019-406-3861, E-mail : seolpun@hanmail.net

복잡한 현대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거리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아직 명확한 가치판단력이 서있지 않은 고등학생의 경우 가치혼란의 상태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그들은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서있지 않으며 가치문제에 직면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갈수록 사회의 변화는 빨라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상황은 늘어만 간다. 그리고 나날이 늘어만 가는 문제상황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가치갈등 속에 빠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가치갈등 현상은 문제상황을 만났을 때 유발되며 갈등을 유발시키는 가치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는가와 연관된 인지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Piaget(1970)은 인지구조가 내적인 갈등에 직면했을 때 변형과 창조가 일어난다고 하여 가치갈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그에 의하면 갈등상태에 놓여 있는 개인은 동화(assimilation)와 조절(accommodation), 그리고 평형(equilibrium)이라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서 문제상황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개인은 이처럼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지구조를 동원하게 되며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에 따라서 인지구조의 발달을 가져오는 상호 순환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Simon, Howe와 Kirschenbaum(1991)은 다른 가치들과의 관계에서 우선 순위를 가진 하나의 조직된 가치체계로 가치들이 통합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가치체계가 인지구조의 한

축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들에 의하면 인지구조와 마찬가지로 가치체계 역시 성장하고 변화하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치체계가 발달하게 되면 문제 해결능력도 발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구조와 마찬가지로 가치체계 역시 가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변증법적으로 발달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치체계의 발달과 관련하여 역설적이게도 문제상황을 의도적으로 제시하여 준 다음 개인으로 하여금 가치갈등을 유발할 수 있도록 조성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명료화 이론가들(Beller, 1986; Kinnier, 1995; Kirschenbaum, 2000; Raths, Harmin, & Simon, 1978)은 의도적인 문제상황, 즉 ①생활의 문제나 장애를 포함하고 있는 가치징표, ②사랑, 우정, 성, 직업과 연관된 복잡한 개인적인 문제, ③규칙, 가족, 이웃, 학교, 사회, 국가 등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가치 명료화라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문제상황을 만들어 내는 실제적인 상황에 주목하고 그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실질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가치라는 사실에 의견을 같이한다. 말하자면 문제해결 과정은 가치선택과 실천의 과정이며 가치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실천하는 사람일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발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가치명료화 이론에서 주장하는 명료화 과정을 보면 D'zurilla와 Nezu(1982)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해결과정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가치명료화의 출발점인 선택하기 과정으로부터 존중하기, 행동하기 과정에 이르는 전체적인

과정은 사회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규정과 형성, 대안적 해결책의 산출, 의사결정, 해결책 실행과 확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과 유사한 면이 있는 것이다. 다만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가치명료화 과정이 해결의 주안점을 가치에 두고 있는 반면 사회적 문제해결 과정은 직접적인 대안의 파생과 실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D'zurilla와 Nezu(1982)는 사회적 문제해결 과정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게 되면 개인적인 문제나 개인간의 문제, 또는 집단간의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바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일상 생활 속에서 가치들이 뒤섞여 있는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명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한편, Branden(1992)은 문제나 고난에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을 자아존중감이라고 정의하면서 고난을 극복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강화된다고 하였다. Pelham과 Swan(1989) 역시 총체적인 자아는 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된 신념 체계(belief system)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가치에 대한 평가와 수용을 신념 체계의 주요 구성원으로 보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태도에 대한 가치 판단과 긍정적인 평가를 자아존중감이라고 정의한 한규석(2002), Cast와 Burke(2002), Coopersmith(1967)의 연구는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가치에 대한 인식과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Campbell, Rudich와 Sedikides(2002)도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정도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여 자아존중감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승훈(1997)과 김희화(1998) 역시 자기 자신의 특성에 대한 가치를 기술하는 판단과 평가적 개념을 자아존중감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가치가 자아존중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치들을 평가하고 선택하여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성취감은 자신의 존재에 유의미성을 부여하고 자아존중감의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가치를 중심 주제로 하여 문제상황을 해결하려는 가치명료화 방법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문제해결기술이나 대처 방식을 주로 다루는 문제해결 훈련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직접적인 성과를 얻고자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상황은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근 방법으로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려는 방법 이외에 또 다른 접근법을 염두해 볼만하다. 복잡한 문제상황을 만들어 내는 진짜 주인공은 가치들이므로 이러한 가치를 중심 주제로 다루면서 간접적이면서 보다 심층적으로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가치명료화 방법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유용하게 여겨진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치들을 명료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문제상황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

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의 관심의 대상이 전혀 되지 못하였다.

이에 비하여 가치와 자아관련 요소(자아개념,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양적으로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자아관련 요소 가운데 자아개념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아존중감과 관련해서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선행연구들도 그 연구의 대상이 주로 초등학생 같은 저학년이 대부분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기는 가치혼돈의 시기이며 자아탐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때이므로 가치명료화 방법을 이용하여 자아존중감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고등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가설을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서 의미있는 변화(사전, 사후, 추수)를 보일 것이다.

1-1.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사회적 문제해결지향성에서 의미있는 변화(사전, 사후, 추수)를 보일 것이다.

1-2.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사회적 문제해결기술에서 의미있는 변화(사전, 사후, 추수)를 보일 것이다.

2.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

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자아존중감에서 의미있는 변화(사전, 사후, 추수)를 보일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S 고등학교 2학년 남, 여학생 357명 가운데 무선 표집과 균등 할당 방식으로 선정된 24명이다. 먼저 357명을 대상으로 36명을 무선 표집한 다음 연구에 참여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6명을 제외하였다. 1차 연구 대상이 된 30명에 대하여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진 학업 성적(공태수, 1998; 김경희, 1998; 김춘례, 1992; 윤수일, 1998; 이종진, 2002; Marsh, 1990; Pellegrini, 1985)을 고려하여 2명씩 짝을 지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12명씩 균등 할당하였다. 균등 할당 과정에서 학업 성적이 불일치한 6명은 제외되었다.

측정 도구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검사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로 SPSI(Social-Problem Solving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SPSI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를 검사하기 위해 D'zurilla와 Nezu(1990)가 개발한 것으로 문제해결지향척도와 문제해결기술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해결지향척도는 인지, 정서, 행동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문제해결기술척도는 문제규정 및 구성화, 대안적 해결책의 산출, 의사결정, 해결책 실행

과 확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 영역마다 10문항씩 총 70문항으로 5점 척도에 의해 반응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발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영미·김중술(1992)이 번안한 SPSI 검사지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Cronbach α 계수는 .80 ~ .88로 분포되어 문항 내적 일관성에서 신뢰로운 검사도구로 판명되었다.

자아존중감 검사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Coopersmith (1967, 1975)의 연구를 바탕으로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개발한 자아존중감 검사(Self-Esteem Inventory)을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일반적 자아존중감(6문항), 사회적 자아존중감(9문항), 학교 자아존중감(8문항), 가정적 자아존중감(9문항)을 하위 영역으로 하여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검사지는 5점 척도 Likert식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검사지의 문항 내적 일관성 지표인 Cronbach α 계수는 .69~.84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가치명료화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Raths, Harmin과 Simon(1978)의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설재풍(2003)이 개발한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재풍(2003)의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은 문제상황 속의 가치를 선택하고 존중하여 실천하도록 하는 과정이 12회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자아존중감을 증진하는데 유용하게 여겨진다. 문제해결능력과 자아존중감은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가치 갈등사태나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이나 태도, 그리고 기술들과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과정이 중요하다. 설재풍(2003)의 프로그램은 ‘문제상황 선택하기’ ‘문제상황 속의 가치의 우선순위 정하기’ ‘가치 선언문 발표하기’ ‘가치실천 기록장 쓰기’ 등 가치 중심 문제해결 과정을 체계적으로 다루도록 되어 있어서 본 연구 도구로 적합하다.

중학생의 활동 시간에 맞게 편성된 프로그램을 본 연구 대상인 고등학생의 활동 시간에 맞게 시간을 60분으로 조정하고 회기를 1회 늘렸으며 가치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치실천 사례물 제시하기’를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프로그램의 요약 내용은 표 1과 같다.

연구 절차

실험집단에는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사전, 사후, 추수검사를 실시하고 통제집단에는 무처치를 가한 다음 실험집단과 동일한 검사를 실시하는 사전 사후 추수 통제집단 설계(pre-post-follow up control group designs)를 적용하였다. 프로그램의 적용 기간은 2004. 9. 25~12. 26이었으며, 매주 1회(수요일 오후 4시) 60 분간 특별실에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자리를 중앙 집중식으로 배치하고 활동 도중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을 중앙 테이블 위에 마련해 두었다. 매 회기마다 실시된 프로그램의 내용과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보관하기 위하여 파일철을 배부하였다. 파일철은 매 회기 진행을 마친 다음 회수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도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의 진행 속도와 방법을 조절하는 자료로 삼았다.

표 1.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의 요약 내용

회기	주 제	내 용
1	프로그램 안내 및 사전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내용 및 진행 방법 소개 · 참여자 소개 및 집단 형성 · 사전검사 실시
2	1단계: 자유롭게 선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가지 문제상황을 준비시키기하여 집단원들에게 배부 · 준비된 문제상황을 읽고 그 내용을 그림이나 만화로 바꿔서 표현해 보기 · 문제상황 3가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3	2단계: 여러 가지 대안으로부터 선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의 분류체계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 문제상황에 대한 해결 대안을 나열하기 · 대안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가치의 종류를 파악하고 분류한 다음 가치판단의 관점을 분명히 하기
4	3단계: 결과 고려 후의 선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열된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여 기록하기 · 결과 예측 항목에 따라 대안과 가치의 우선순위 정하기
5	4단계: 선택의 존중 및 확신하기 1) 주인공 1인칭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상황 1에 대한 주인공 1인칭화 방법 이해하기 · 문제상황별 주인공 1인칭화 실시
6	4단계: 선택의 존중 및 확신하기 2) 자기충족 예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상황 1에 대한 자기충족 예언 쓰기와 예언 그림 그리기 방법 알기 · 문제상황별 자기충족 예언 쓰기와 예언 그림 그리기
7	5단계: 선택에 대해 공언하기 3) 가치 선언문 작성 발표하기 4) 집단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상황 1에 가치선언문 작성 발표와 집단 인터뷰 방법 알기 · 문제상황별 가치선언문을 작성하고 발표하기 · 발표한 가치선언문 내용에 대한 가치 인터뷰 수첩 기록하기 · 발표한 내용에 대한 집단 인터뷰 실시하기
8	6단계: 선택에 따라 실천하기 1) 유사경험에 대한 발표와 평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상황과 유사한 경험을 적고 발표하기 · 문제상황과 유사한 경험 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서 작성 과제 제시
9	6단계: 선택에 따라 실천하기 2) 가치의 실천 계획 세우기 3) 가치실천 기록장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한 가치 실천 계획서를 발표하기 · 가치 실천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수정하기 · 가치 실천 기록장을 배부하고 작성 요령 숙지하기
10	7단계: 반복적으로 일관성있게 실천하기 4) 가치실천 점검표 작성하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실천 점검표를 작성하고 발표하기 · 가치실천 사례물 제시하기 · 가치실천에 대한 반성 및 평가하기
11	7단계: 반복적으로 일관성있게 실천하기 4) 가치실천 점검표 작성하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실천 점검표를 작성하고 발표하기 · 가치실천 사례물 제시하기 · 가치실천에 대한 평가 및 반성하기
12	7단계: 반복적으로 일관성있게 실천하기 4) 가치실천 점검표 작성하기(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실천 점검표를 작성하고 발표하기 · 가치실천 사례물 제시하기 · 가치실천에 대한 평가 및 반성하기
13	프로그램 종결 및 사후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참여 자가평가지 작성 발표하기 · 사후검사 실시

그리고 프로그램의 첫 시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2개월 후(2005. 2. 16)에 추수검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자료로 삼았다.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실험집단이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자아존중감에서 의미있는 변화(사전, 사후, 추수)를 보였는가(가설 1, 2)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변량 분석(ANCOVA: 집단 간 사후, 추수검사 점수 비교)과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 집단 내 사전, 사후, 추수검사 점수 비교)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인으로 판단되는 학업 성적(1학기 말 평균 점수)은 연구대상의 구획과 할당 과정에서 통제되었기 때문에 공변량으로 투입하지 않았다.

결 과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서 의미있는 변화(사전, 사후, 추수)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사전, 사후, 추수검사를 실시하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다음 사전검사 점

수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변량 분석(사후, 추수 검사 점수에 대한 두 집단간 차이 비교)과 반복측정 분산분석(사전, 사후, 추수검사 점수에 대한 집단 내 차이 비교)을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검사시기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으며 사후, 추수검사 점수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는 표 3과 4에, 그리고 검사시기에 따른 집단 내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는 표 5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표 3과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문제해결지향성에 대한 사후검사 점수 공변량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85.45, P<.001$), 추수검사 점수에 대한 공변량 분석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F=44.78, P<.001$).

이러한 통계 처리 결과는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 영역인 문제해결지향성을 긍정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즉, 문제상황에 들어 있는 가치를 선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성향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문제해결지향성에 대한 이와 같은 의미있는 집단간 차이 비교를 바탕으로 집단 내 검사 시기별 차이 비교를 실시해 보았다.

표 5에 따르면 사회적 문제해결지향성에 대한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추수검사 점수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1.05, P<.001$). 검사 시기별 사후 검증에서는 사전-사후, 사전-추수간에는 각각 유의미하였으나 사후-추수검사 점수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통제집단의 경우 각 검사 점수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표 2. 검사시기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변인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수검사
		M(SD)	M(SD)	M(SD)
실험 집단	문제해결지향	90.25(11.33)	107.75(6.45)	109.00(9.19)
	문제해결기술	120.58(8.93)	139.25(9.96)	137.33(13.05)
	문제해결능력 전체	210.83(16.41)	247.00(14.30)	246.33(14.46)
통제 집단	문제해결지향	92.00(8.83)	93.67(11.13)	93.17(11.54)
	문제해결기술	119.33(8.08)	119.25(8.35)	120.58(7.93)
	문제해결능력 전체	211.33(14.90)	212.92(18.00)	213.75(17.67)

표 3. 집단 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사후검사 점수의 공변량 분석 결과

변인	변량원	SS	자유도	MS	F	P
문제해결지향	공변량 (사전검사 점수)	1469.88	1	1469.88	87.93	.000
	집단	1428.35	1	1428.35	85.45	.000
	오차	351.02	21	16.71		
문제해결기술	공변량 (사전검사 점수)	1598.91	1	1598.91	130.35	.000
	집단	2096.76	1	2096.76	170.94	.002
	오차	257.58	21	12.26		
문제해결능력 전체	공변량 (사전검사 점수)	5104.55	1	5104.55	151.32	.000
	집단	7168.25	1	7168.25	212.50	.000
	오차	708.36	21	33.73		

것으로 나타나 실험집단과 대조를 이루었다 ($F=1.69, P>.05$). 이러한 통계 처리 결과는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이 사회적 문제해결지향성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가설 1-1을 지지해 준다.

그리고 표 3과 4에 따르면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사후검

사 점수의 공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났으며($F=170.94, P<.01$) 추수검사 점수에 대한 공변량 분석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F=52.58, P<.01$).

이와 같은 통계 처리 결과가 시사해 주는 바는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이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다.

표 4. 집단 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추수검사 점수의 공변량 분석 결과

변인	변량원	SS	자유도	MS	F	P
문제해결지향	공변량 (사전검사 점수)	1561.80	1	1561.80	39.33	.000
	집단	1778.19	1	1778.19	44.78	.000
	오차	833.86	21	39.70		
문제해결기술	공변량 (사전검사 점수)	2004.36	1	2004.36	75.00	.000
	집단	1405.29	1	1405.29	52.58	.001
	오차	561.21	21	26.72		
문제해결능력 전체	공변량 (사전검사 점수)	5035.45	1	5035.45	151.17	.000
	집단	6558.36	1	6558.36	196.90	.000
	오차	699.46	21	33.30		

말하자면 가치를 명료화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규정과 대안적 해결책을 산출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능력이 증진되었음을 말하여 준다.

이러한 공변량 분석 결과는 집단 내 검사 시기별 차이를 비교한 통계 검증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문제해결기술에 대한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추수검사 점수간의 비교에서 각 검사 시기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F=70.30, P<.01$) 사후 검증에서는 사전-사후, 사전-추수검사간에는 각각 유의미하였지만 사후-추수검사간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실험집단의 검사시기별 검증 결과는 본 프로그램의 실질적, 지속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통제집단의 검사 시기별 반복 측정 분석 결과가 유의미하게

표 5. 집단 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사전, 사후, 추수검사 점수의 분석 결과

집단	변인	SS	자유도	MS	F	P	사후검증 P값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
실험집단	문제해결지향	2637.50	2	1318.75	61.05	.000	.000	.002	.468
	문제해결기술	2530.72	2	1265.36	70.30	.004	.000	.000	.304
	문제해결능력 전체	10274.88	2	5137.44	307.87	.000	.000	.000	.151
통제집단	문제해결지향	17.55	2	8.77	1.69	.206	.096	.320	.491
	문제해결기술	13.38	2	6.69	3.11	.064	.838	.068	.095
	문제해결능력 전체	36.16	2	18.08	2.59	.097	.187	.060	.396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실증되었다($F=3.11, P>.05$). 그러므로 사회적 문제해결기술을 증진한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이러한 통계처리 결과에 따라 가설 1-2는 수용되었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 영역인 문제해결지향성과 문제해결기술에 대한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전체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있으리란 기대를 갖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전체에 대한 통계처리 결과에서 입증되었다. 표 3과 4가 말해주는 바와 같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전체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사후검사 점수와 추수검사 점수를 공변량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사후: $F=212.50, P<.001$, 추수: $F=196.90, P<.001$) 집단 내 검사 시기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는 표 5에서도 실험집단은 유의미하였으나($F=307.87, P<.001$) 통제집단은 유의미하지 않았다($F=2.59, P>.05$). 따라서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서 의미있는 변화(사전, 사후, 추수)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1은 수용되었다.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자아존중감에서 의미있는 변화(사전, 사후, 추수)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사전, 사후, 추수검사를 실시하고 공변량 분석(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는 사후, 추수검사 점수에 대한 두 집단간 차이 비교)과 반복측정 분산분석(사전, 사후, 추수검사 점수에 대한 집단 내 차이 비교)을 하였다.

자아존중감의 검사 시기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과 같으며, 사후, 추수검사 점수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는 표 7과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8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의 사후검사 점수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실험집단과

표 6. 검사시기에 따른 자아존중감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변인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수검사
		M(SD)	M(SD)	M(SD)
실험 집단	자아 존중	88.67(13.14)	93.42(14.88)	93.83(15.24)
통제 집단	자아 존중	92.08(12.23)	92.42(12.57)	92.58(12.24)

표 7. 집단 간 자아존중감 사후검사 점수의 공변량 분석 결과

변인	변량원	SS	자유도	MS	F	P
자아 존중	공변량 (사전검사 점수)	4028.45	1	4028.45	574.02	.000
	집단	126.83	1	126.83	18.07	.000
	오차	147.37	21	7.01		

표 8. 집단 간 자아존중감 추수검사 점수의 공변량 분석 결과

변인	변량원	SS	자유도	MS	F	P
자아 존중	공변량 (사전검사 점수)	3953.11	1	3953.11	330.11	.000
	집단	138.89	1	138.89	11.59	.003
	오차	251.47	21	11.97		

표 9. 집단 내 자아존중감 사전, 사후, 추수검사 점수의 분석 결과

집단	변인	SS	자유도	MS	F	P	사후검증 P값		
							사전 사후	사전 추수	사후 추수
실험집단	자아 존중	197.72	2	98.86	15.43	.000	.001	.002	.447
통제집단	자아 존중	1.55	2	.77	.74	.488	.220	.324	.732

통제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8.07, P<.001$) 추수검사 점수에 대한 공변량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F=11.59, P<.01$).

이러한 통계 처리 결과는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음을 말하여 준다. 즉, 문제상황에 들어 있는 가치를 선택하고 존중하며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회, 학교, 가정 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두 집단간 공변량 분석에 이어 집단 내 검사 시기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에 대한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추수검사 점수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F=15.43, P<.001$) 통제집단의 경우 각 검사 점수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F=.74, P>.05$). 검사 시기별 사후 검증에서는 사전-사후, 사전-추수간에는 유의미하였으나 사후-추수검사 점수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통계 처리 결

과는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프로그램의 효과가 추수(2개월 후)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말하여 준다. 결국 이러한 통계 처리 결과에 따라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자아존중감에서 의미있는 변화(사전, 사후, 추수)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2는 수용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문제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정한 다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사회적 문제해결능

력에서 의미있는 변화(사전, 사후, 추수)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문제해결 지향성과 문제해결기술을 포함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전체를 증진하는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이상과 같은 사실은 인지-행동적 자기 통제 훈련을 실시하여 문제해결능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이경임(1996)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경임(1996)은 인지적 대처 방식, 자기점검과 자기평가, 그리고 자기강화로 구성된 인지-행동적 자기 통제 훈련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킨 결과를 제시하여 자기 통제 훈련의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이경임(1996)이 적용한 자기 통제 훈련은 문제해결능력 가운데 인지적 요인을 중시한 것으로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자기 통제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구사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방향과 유사하다. 즉 문제해결능력의 바탕이 되는 인지적 영역에 주안을 두고 자기 통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킨 것처럼 본 연구 역시 갈등관계에 있는 가치들을 명료화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킨 것이다.

한편 김금열(2002)은 심리사회적 문제해결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활근로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켰다고 하였으며, 최이순(2002) 역시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문제해결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문제해결 요소들을 결합하는 능력을 긍정적으로 개선하였다고 하여 사회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고하였다. ADHD 성향을 지닌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문제해결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신재진(2002)의 경우도 문제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행

동의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을 통하여 문제의 원인을 추론하는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하였으며, 차명호(1991), Hansen, Lawrence와 Christoff(1985) 역시 대학생과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사회적 문제해결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하였다. 김주섭(2000)과 Mynors-Wallis, Gath, Lloyd-Thomas와 Tomlinson(1995) 그리고 Platt, Husband, Hermalin과 Metzger(1993) 또한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사회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직접적으로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켰다는 이상의 선행연구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해결책의 산출능력이나 대처기술의 배양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들 연구에 적용된 프로그램은 사회적 문제거리를 근원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사실 일상 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사회적 문제상황은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방법만으로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이며 보다 심층적인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가치명료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은 문제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주요원인을 가치에서 찾고 가치의 선택과 존중, 행동화의 과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성과를 얻어낸 반면 본 연구에서는 문제상황의 근원적인 원인이 가치에 있음을 전제로 가

치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단계별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고등학생의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킨 것이다. 즉 직접적인 대안의 산출과 실천에 주안을 두는 기존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신장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가치 중심의 문제해결 방법을 구사하고 있는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재풍(2003)의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으나 설재풍(2003)의 연구에서는 해결책 수행과 확인에서 유효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는 가치의 실천과 습관화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써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재풍(2003)의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전체를 증진시키는 의미있는 성과를 얻어내었다.

둘째,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자아존중감에서 의미있는 변화(사전, 사후, 추수)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한 결과 통제집단에 비하여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12회기에 걸쳐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킨 성혜영(2000)과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자아존중감 전체 영역을 향상시킨 이승훈(1997)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양은심(2000)도 가치명료화 방법 가운데 하나인 가치지를 활용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였다고 하였으며, Howell(2001) 역시 가치를 명료화 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 결과를 보고하였다. 박선화(2000)와 Depetro(1975)의 경우도

각각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가치명료화 훈련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을 증진하였다고 하여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효과를 제시한 바 있다.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성공한 김지영(2002)의 연구도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들은 가치명료화 과정이나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본 연구 결과 역시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효과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가치명료화 프로그램들은 가치의 선택과 실천과정이 분절되어 있고 조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용된 설재풍(2003)의 프로그램과 구별된다. 설재풍(2003)의 프로그램은 문제상황을 직접 제시하고 이를 다루는 문제해결 과정 중심 프로그램으로 순차적인 접근 방식을 중요시 하지만 선행연구의 경우 자아존중감 증진에 적합한 활동 주제를 선택적으로 편성하여 비연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설재풍(2003)의 프로그램은 가치의 선택과 내면화 과정이 단계별로 일관되게 편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의 경우 자아존중감 증진이라는 거시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독립적인 성격을 띤 복합적인 주제를 회기별로 짜 맞추어 내용을 구성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을 분절적으로 구성하여 적용하는 방법 이외에 그 내용이 순차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대상으로 관심이 적었던 고등학생에게 순차적으로 연계된 설재

풍(2003)의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자아존중감에 관한 가치명료화 과정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 대부분이 초등학교 같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같은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자아존중감 형성은 저학년 학생뿐만 아니라 고학년 학생에게도 중요한 정서적 요인으로 가치명료화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고등학교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킨 본 연구의 성과에 대한 이와 같은 논의 속에 본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논의 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장기 분산형 실험집단과 무처치 집단으로 두 가지 연구집단을 설정하여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나 최소 2집단 이상의 실험조건과 통제 집단을 설정하여 실험집단 간의 효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단기 집중형 실험집단 같은 다양한 연구집단을 설정하고 각 집단 유형별 프로그램의 상대적인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자아존중감의 통제변인으로 학업성적만을 고려하여 통제 처리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프로그램의 처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매개요인을 다각도로 추출하여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약 2개월 후에 추수검사를 실시하고 통제 처리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추수검사 시기를 길게 잡거나 반복 측정

시기를 여러 번 설정하여 프로그램의 실질적 성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관련 요소 가운데 비교적 연구 결과물이 적은 자아존중감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다양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관련 요소들(자아개념, 자아효능감, 자아정체감 등)을 종속 변수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그 상대적인 효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공태수 (1998). 초등학교의 자아존중감에 따른 창의성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교육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 (1998).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금열 (2002). 자활근로대상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문제해결능력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 김종술 (1992). 우울증환자들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정신의학 학회지, 17(2), 130-138.
- 김주섭 (2000). 문제해결기술훈련과 심성수련훈련의 효과 비교: 학교폭력 가해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2002).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이 중년기여성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우울증 외래환자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춘례 (1992). 자아존중감에 따른 통제소재와 학

- 업성취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화 (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선화 (2000). 가치 명료화 훈련수업이 초등학생의 가치명료화, 자기존중감 및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재풍 (2003). 가치명료화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적용이 중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혜영 (2000).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친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재진 (2002).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 성향 아동을 위한 사회적 문제해결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은심 (2000). 가치지가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친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수일 (1998).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불안 및 학업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대구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임 (1996). 인지적-행동적 자기통제 훈련이 아동의 자기통제능력, 과제 수행능력 및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훈 (1997). 가치관 명료화 프로그램이 아동의 긍정적 자기개념 형성 및 자기 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진 (2002). 아동이 지각한 교사의 기대감과 학업성취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형진 (1996). 가치명료화 수업 적용에 관한 실험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명호 (1991). 문제해결훈련이 문제해결에 대한 자기평가와 문제해결행동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보가, 전귀연 (1993). 자아존중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기정학회지, 31(2), 41-54.
- 최이순 (2002).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사회적 문제해결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규석 (2002).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Beller, E. (1986). Education for character: An alternative to values clarification and cognitive moral development curricula. *Journal of Educational Thought*, 20(2), 67-76.
- Branden, N. (1992). *The power of self-esteem*, 강승규 역(1995). 나를 존중하는 삶. 서울: 학지사.
- Campbell, W. K., Rudich, E. A., & Sedikides, C. (2002). Narcissism, self-esteem, and positivity of self-views: Two portraits of self-lo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3), 358-368.
- Cast, A. D., & Burke, P. J. (2002). A theory of self-esteem. *Social Forces*, 80(3), 1041-1068.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 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Coopersmith, S. (1975). *Coopersmith self-inventory*. San Francisco: self-esteem institute.
- Depetro, H. M. (1975). *Effects of utilizing values clarification strategies on the self-esteem of*

- second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olorado, US.
- D'zurilla, T. J., & Nezu, A. M. (1990). Development and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 156-163.
- D'zurilla, T. J., & Nezu, A. M. (1982). Social problem solving in adults. In P. C. Kendall(Ed.), *Advances in cognitive-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Vol. 1. pp. 201-274). New York: Academic Press.
- Hansen, D. J., Lawrence, J. S., & Christoff, K. A. (1985). Effects of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training with chronic aftercare patients on problem-solving component skills and effectiveness of solu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167-174.
- Howell, L. C. (2001). Implications of personal values in women's midlife development. *Counseling and Values*, 46(1), 54-65.
- Kinnier, R. T. (1995). A reconceptualization of values clarification: Values conflict resolu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 18-24.
- Kirschenbaum, H. (2000). From values clarification to character education: A Personal Journey.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Education and Development*, 39, 4-20.
- Marsh, H. W. (1990). Causal ordering of academic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A multi-value, longitudinal panel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 646-656.
- Mynors-Wallis, L. M., Gath, D. H., Lloyd-Thomas, A. R., & Tomlinson, D. (1995). Randomized controlled trial comparing problem solving treatment with nortriptyline and placebo for major depression in primary care. *British Medical Journal*, 310, 441-445.
- Pelham, B., & Swann, W. (1989). From self-conceptions to self-worth: on the sources and structure of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672-680.
- Pellegrini, D. S. (1985). Social cognition and competition in middle Children. *Child Development*, 56, 253-264.
- Piaget, J. (1970). *The science of education and the psychology of the child*. trans., by D. Coltman, New York: Viking.
- Platt, J. J., Husband, S. D., Hermalin, C. J., & Metzger, D. (1993). A cognitive problem-solving employment readiness intervention for methadone clients.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An International Quarterly*, 7, 21-33.
- Raths, L. E., Harmin, M., & Simon, S. B. (1978). *Values and teaching: Working with values in the classroom*. Columbus: Charles E, Merrill Company.
- Simon, S. B., Howe, L. W., & Kirschenbaum, H. (1991). *Values clarification: A handbook of practical strategies for teacher and students*. Chesterfield: Values press.
- 원 고 접 수 일 : 2005. 2. 21
수정원고접수일 : 2005. 7. 11
게 재 결 정 일 : 2005. 8. 5

The Effects of High School Student's Values Clarification Program on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ies and Self-Esteem

Jae-Pung Seol

In-Ho Hwang

Kon-Kuk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effects of the Values Clarification Program(VCP) on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ies and Self-esteem. For this research, one experimental group and one control group, composed of 24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respectively, are organized and then divided into groups of 12 by Matched-Group Design. The VCP is applied to the experimental group while no treatment is applied to the control group.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VCP, two groups are aske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 before, after, and 2 months after the program. The study results obtained through this proces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rom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f VCP on social problem solving, the statistics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sub factors of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ies of the students. Therefore, it can be proved that VCP of this study had significant effects on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ies. Second, VCP of this study had effect on improving student's Self-esteem. In conclusion, VCP of this study were effective to increase the level of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ies and Self-esteem of the students.

Key Words : values clarification,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self-esteem